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버지와 홍범도〉 연구*

김현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삶
- III. 아버지와 홍범도, 남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아버지와 홍범도>는 문금동이 자신의 유년시절을 배경으로 아버지 문승열을 비롯한 초창기 러시아 이주 고려인과 독립군 홍범도장군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아버지와 홍범도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인간임을 자각하는 일임을 상기시키는 한편, 이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독립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두 인물은 고려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현실타개의 갈망이 투영된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은 문금동 삶의 궤적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고려인들의 생활사를 구명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그의 글쓰기는 자신의 가족사를 넘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아버지, 홍범도, 러시아 이주 고려인, 독립군, 남성인물, 정(情)

* 이 논문은 2017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I. 머리말

고려인 작가 문금동(1912~1992)은 러시아 연해주 출신으로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 이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소설 작업을 해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그의 작품은 <인정루>와 <아부지와 흥범도> 두 편으로¹⁾ 작품 편수는 많지 않으나 모두 한글로 쓰여 있으며,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고려인의 현실을 짚진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작품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외에 문금동의 생애나 그의 문학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야 그의 자필 원고가 출간됨으로써 앞으로 진척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문금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인정루>와 관련한 두 편의 논문이 전부이다. <인정루>는 문금동이 22년 간 심혈을 기울여 쓴 그의 대표작으로 17, 8세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이야기 소재들을 다양하게 변용하여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선행연구에서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는 문금동의 생애와 함께 소련시대 고려어 소설 창작의 문화운동사적 의의를 밝히는 한편, 본 작품이 인정류 소설양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살폈으며,²⁾ 김현주는 등장인물 분석을 바탕으로 작가의 전통기억하기

1) 그의 또 다른 소설로 알려진 <술발관 토벌>은 문금동, 『아부지와 흥범도』, 현대문화사, 2017. 156쪽까지의 내용과 일치한다. 몇몇 누락된 구절이 있기는 하나 두 작품을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 <술발관 토벌>은 김종희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에서 소개되었는데 어떤 경로로 작품이 발굴되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문금동이 <술발관 토벌>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시작하였다가 이를 확대하여 <아부지와 흥범도>를 쓴 것인지, 아니면 일부 발굴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제목을 붙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차후에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2)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5집, 2014.

를 통한 디아스포라 고려인으로서의 자기서술 방식에 주목한 바 있다.³⁾ 이외, 이동순은 『아부지와 홍범도』 출간 서문에서 홍범도 연구에 천착하던 중에 문금동 작품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아부지와 홍범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하였다.⁴⁾ 이들 연구는 문금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고려인 문학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⁵⁾

이처럼 간간이 문금동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의 작품 세계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작가가 <인정루> 2부라 칭하고 있는 자전적 소설, <아부

3)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77집, 2017.

4) 이동순, 「고려인 기록문학 작품의 가치와 의미 - 문금동의 실록수기 <아부지와 홍범도>를 심으로-」, (『아부지와 홍범도』, 앞의 책.) 논의에서는 작품 줄거리 소개와 함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기록문학작품이 보여주는 참신성”(p.22)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작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고려인 문학연구는 주로 소비에트 기관지인 『선봉』(先鋒)(1923~1937)과 『레닌기치』(1938~1990)에 실린 작품, 그리고 고려인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인 김준, 장세일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의 정체성 문제, 디아스포라적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 장사선·우정권은 고려인들의 디아스포라 삶의 궤적을 다룬 소설들을 “CIS 고려인 소설의 원류를 형성한 단계, 항일 투쟁 영웅을 통한 뿌리 찾기를 행한 단계, 새로운 조국으로서의 사회주의 소련 예찬과 정착단계, 이민족 속에서의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 고뇌를 한 단계,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체제의 붕괴와 다양화 사회로의 개방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 월인, 2005, p.38.) 초창기 연구에서는 주로 민족주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점차 고려인들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소비에트 공민으로서 가지는 독특한 정체성을 밝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강진구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욕망이 어떻게 억압되고 변용되어 왔는지를 통해 이들의 정체성을 살폈으며,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29집, 2006.) 임형모는 고려인들의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귀속의지에 주목하였다. (『강제적 ‘집단지주’의 인간학 :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강제이주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51호, 2012.) 임형모·우정권·이정선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CIS지역에 이르는 고려인의 삶과 작품들을 정리함으로써 고려인 문학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려인문학』, 청동거울, 2013.

지와 홍범도>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작품은 문금동이 자신의 유년시절을 배경으로 아버지 문승열을 비롯한 초창기 러시아 이주 고려인과 독립군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스토리 전개상 <인정루>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나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문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할아버지 형상화가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영웅적 인물들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는 점 등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버지와 홍범도>는 <인정루> 주인공 문옥산을 이은 그의 후손들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작품은 작가의 생애를 해명하고 그의 작품창작 동인을 찾는 데 상당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아버지와 홍범도>는 구한말 의병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갔던 홍범도(1868~1943) 장군 형상화를 중심으로 고려인들의 구소련 사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⁶⁾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하여 조선적 민족주의자에서 국제적 사회주의자로 거듭나게 되는 고려인의 정체성은 이후 고려인의 삶을 규정하고 고려인문학만의 특수성을 낳는다.”⁷⁾ 홍범도 형상화 속에 담긴 주제의식도 이러한

6) 홍범도는 고려인 사회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영웅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강진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역사 복원 욕망 연구 - 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연구』 25, 2004; 반병률,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투쟁과 고려인 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2013; 반병률, 『홍범도 장군』, 한울, 2014; 오세호,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의 정체성과 홍범도 인식(1937~196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5집, 2016; 장세운,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홍범도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1991; 장세운,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역사공간, 2007.

7) 우정권·임형도, 『고려인문학의 성격과 전개 양상 : 1940~60년대 『레닌기치』 문예면에 나타난 고려인문학의 특징 고찰』,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44호,

특성과 궤를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의 생활사와 역사적 정체성을 구명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부지와 홍범도>에 그려진 고려인들의 삶과 인물형상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문금동 문학세계의 특수성을 구명하고, 러시아 고려인 문학 및 한국 문학에서 그가 차지하는 문학적 위상과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작가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 속에 담긴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Ⅱ.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삶

<아부지와 홍범도>(1987)는 문금동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작품은 ‘어렸을 때 일을 잊을 수 없다’는 말로 시작된다. 만 75세의 노인이 되어서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 한다면 이는 과거가 단순한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작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신적 근간과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본 작품은 기억을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궤적을 재구성하고 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리었을때경과한 사항을 잊을수 없어요

아시아 동방 한반도 삼철니금수강산은 흰옷입은 이천만 동포 땀십 천년을 살아 오던 조선민족의 조국이라 삼으로 밭을일구어 생애를겨우 부지하여 내려오는 인민의생활은 곤궁에 시달리나 그의 지배층은 빈민의생활을 돌보지않

고 소위 ‘예의지 국’이라 칭하고 상하의계급을 각별히 분별하여 양반 쌍놈을 분종하니 빈민들의 학대는 비할데없는 종의명에서 신음 고통하고 귀족과양 반층은 부귀공명을 누리며 고진급퇴를 모르더라 궁전에앉은 황제와 대신들은 국사를 살피지않고 양반을 베풀만주며 백성의질고와 나라의안위를 돌보지않고 국녀로 희롱하야 게양가를 부르니 국사가 잊혀 한심치 않으리요 <…> 일천 구백 십년 팔월 이십구일에 조선은 국명을잃고 일본에 식민지되야 조선 무산계급은 첩첩한 이중압박과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민족으로 착취의명예를 메었으니 <…> 두줄기 눈물노 고국산천을 리별하고 한줄기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로시아로 도강하니 지주와 토호의 머슴사리 천대와구박으로 귀천없는 노예의생활이 기가막힌 증생같은 천대와 학대가 조선사람의게 도라오리라⁸⁾

문금동은 고려인들이 어떻게 해서 러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는가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우선, 이주 배경으로 조선의 역사적 상황을 짚으면서 국난을 초래한 지배계층을 강하게 비판한다. 조선은 소위 ‘예의지국(禮儀之國)’이라 칭하면서 불합리한 상하계급 질서 하에 귀족과 양반, 황제 등은 부귀공명을 누리는 데 신경 쓰느라 백성과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백성들은 신분차별과 물질적 곤궁함으로 고달프게 살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배가 시작된 이후로는 일제의 착취와 억압을 견디지 못해 러시아로 도강해 갔으나, 이곳에서도 노예와 같은 삶은 벗어날 길이 없었다며 울분을 토한다. 이는 러시아 이주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일제의 탄압이 초래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내몰림이었음을 밝혀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 『아부지와 흥범도』, pp.1-2. 최근 발간된 위의 책에는 구어체로 이루어진 문금동의 자필본과 이를 격식체 반말의 현대어로 정리한 워드본을 함께 실고 있다. 워드본에는 자필본에 없는 내용이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추가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으며, 오기(誤記)된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원본의 내용과 고려인의 언어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자필본을 인용하였다.

이어 문금동은 “나는 이 애국사상 운동에서 싱싱한 청년독립군들이 일 본수비대에 붓잡히어 악형과 선고를 받는것을 내눈으로 밋으며 그 한 장면을 리록하니 하회를보아 분해하라.”⁹⁾며 집필 목적과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문금동이 평생의 과업처럼 여겨온 기록이라는 것은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생활사와 독립군을 중심으로 그들이 부당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 갔는가를 밝히는 것으로서 이는 작가의 가족사를 넘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주 배경을 설명한 후, 작품은 러시아 추풍(뽀칠로프카) 육성촌을 배경으로 고려인들의 척박한 삶을 그려나간다. 고려인 대부분은 품팔이를 하러 먼 곳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일자리는 고사하고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일제의 감시 때문에 정착해 있던 고려인들이 이들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고려사람들이 강동으로 돈벌이를 오는 사람덜을 고려민죽끼리 불상히 생각하기는 고사하고 폐막이 심하여제양식을 가지고도 일을구할 사에 있을곳이 없어 방황하며 추풍이란곳은 봄이면 하로건네로 비 오는곳이라 비를꺾자하여도 폐막이 막 심하여 사람이 그칩은 비 를 맞어 와들 와들 떨어 아춤불어 밤까지 폐막을 당하니 괴같이 막심함은 고사하고 밤새일곳이 없으니 그 불상함을 엇지사람이 눈을 뜨고 보리요 나는(문금동) 어렸을때일이 아연하게 생각나니 대강 기록 하고저 하나이다!¹⁰⁾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비, 갈 곳 없는 처지, 냉정한 사람들, 일제의 감시 등, 어린 금동이 목격한 것은 탈출구가 없는 고려인들의 삶이었다.

9) 『아부지와 홍범도』, p.4.

10) 『아부지와 홍범도』, p.8.

그리고 이는 금동의 가족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우리부모는 일천구백 십년일본과 합병이후에 조선에서 품을 팔아 살수없
어 일천 구백 십이년에 러시아로 도강하여 추풍룡성이란 곳에와 로령땅에 들
어 조선사람중 제일간다는 부자 박승관의 집에서 삼분반작 농사 머슴사리
를 살과 뼈가 다달토록 밤낮없이 고생하여도 목숨을 겨우겨우 니어가는 살님
을 하다가 우연한 득병으로 어머니는 세상을 파하시고 우연중에 질병으로 우
리아부지는 아들과 딸을 잃었스니 <...> 어린물같은 삼남매를 덜이고 홀아부
로 그간 여간모은 재물노 집을싸고 세간사리라고배포 하니 이것이 처음 몇해
만에 제집이라는것을 잡으니 외몸니들이 비와눈이 썩기어 내리는 풍우한설을
무릅쓰고 이집저집으로 폐막이 막 심하여 직업을 얻지못하고 입살이할 곳과
유할곳을 찾아단니는 니들이 그수부지 이니 아부지 께서는 이 사람들을 넘우
도 불상하여 내입식히니 그렇게 모여오는 나그네 방과정주 바당과헛간에 차
고넌으니 노곤을 못 이기여 괴여뻗을 편리하게 잠잘곳이없어 방황하던 사람
들은 누어잠든니 앉아조오는 니 수십명이였다¹¹⁾

금동의 부모가 러시아로 도강한 것도 1910년 국권 침탈 때문이었다. 그
의 아버지 문승열은 러시아로 이주해 박승관의 집 머슴으로 살아가다 아내
와 아들딸을 병으로 잃어버리고, 홀로 딸 마리아(13세)와 아들 금동(8세),
금석(3세) 삼남매를 기르며 고된 생활을 이어간다. 금동의 가족을 비롯한
이러한 고려인들의 고충은 물질적인 궁핍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보
다 정서적인 불안감, 서로를 보듬을 여지가 없는 각박한 인심이 더 무서운
것이었다. 이에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을 마련한 이후에는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이 수십 명이 되었다.

11) 『아부지와 흥범도』, pp.8-9.

고려인들의 일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정(情)’이다. 본 작품에서는 <인정루>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인간애의 실현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고려인들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기대하기 힘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간애의 필요성은 선악의 구조 속에서 보다 선명히 드러난다. 등장인물들 가운데는 일제에 협력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처럼 인간적 도의를 저버리지 않는 인물들도 있다. 금동의 누나 마리아, 춘화아내 금옥, 일본어 통사 김연학의 아내는 모두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들로 정 많은 사람들이다. 마리아는 어머니가 부재한 집안에서 어린 두 남동생을 알뜰히 돌보며, 금옥 역시 금동형제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껴주는 사람이다. 이웃인 최영감은 아버지가 일본 군인에게 잡혀가자 금동 남매가 잘못될까 걱정하여 가까이서 지켜주기도 한다.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이러한 인간애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변명의 여지를 둘 수 없는 선악의 선택 속에서 어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금동은 어린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 인간임을 자각하고 인간적 도의를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체득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정조차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다. 일제는 금동의 집에 사람이 모여들자 이들 가운데 독립군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급기야 아버지를 잡아가기에 이른다. 아버지는 갖은 고문으로 몸을 심하게 상한 채로 돌아오고, 결국 금동 삼남매를 어여뻐 여기던 춘화부부를 떠나보낸다. 가족은 물론 집안에 모여든 사람들까지 위협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일한 의지처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춘화 가족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후산병으로 춘화아내가 죽자 아이도 죽고, 춘화도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한 것이다. 금동이나 춘화가정의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인들의 비참한 현실은 가족 구성원의 상실, 특히 어머니, 아내의 상실로 극대화된다. 어디서든 제대로 된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모습은 곧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역시 어린 금동이 고스란히 겪어내야 할 일상이었다.

나는 벌써 땃해채 일본군대 군병으로 들어가서 동리아이덜과 같이 단니며 아침에 일찍히 해 돛기전에 가서 쓰럭이 통에서 현축기짜 현간발짜 현신짜 투럭이 등을 주서 오는일이 나의 직업이였다 <...> 아버지는 내가 투럭이 좇는일을 반대하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군대안에 었던 사변이 생하는것을 알기 위하여 보내는 것이였다 <...> 통역들과 군인들 일본장교들은 나를 불민한 아해로 역이여 좀 성하고 탄탄한것으로 나를 주변들은 따로 두었다 주군하는 데 나는 주변을 돕아 쓰럭이통도날나다 던져주며 비로 마당도 같이 협력하여 쓸어주면 때때로 나를 사탕도 주었다 그러면 나는 식당에 가서 물도 들어다 주며 굳은 물도 던지어다 주면 그들은 좋다고한다 그리고 내가 너무어즈럽은 때에는 그들이 세수도 식혀주고 나를 세수를 쓰서주고는 수건을 도루 나를 준다 <...> 었던때에는 장교가 쇠통에 넣은 사탕까지 주며 무어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드며 주며 사랑한다 지금생각하면 저도 고향에 너와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감상이 늑기여 진다¹²⁾

금동은 일본 군병에 들어가 쓸 만한 쓰레기를 줍는 일로 가족의 생계를 돕는다. 일본군인들은 그의 행색을 불쌍히 여겨 좀 나은 물건을 줍게 해주는데, 어느 날은 폭발탄인 줄 모르고 췌덩이를 주워오기도 한다. 금동이 어린 아이로서 체험한 일본군인들은 독립군이나 아버지를 잡아다 고문하

12) 『아버지와 홍범도』, pp.40-42.

는 나쁜 사람들이면서 한편 자신에게 마음을 내주는 어른들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에 마리아는 금동이 혹시나 집안일을 맡설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만 일찍이 철이 든 금동이 위험한 짓을 할 리는 없었다. 사실 아버지가 금동이 일본군병에서 물건 주워오는 일을 반대하지 않은 것은 일본군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금동도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금동은 자기 집에 있다 독립군이 된 사람이 잡혀온 것을 보고는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아버지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작전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경제적 궁핍, 가족 상실, 일제의 감시와 억압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주 고려인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이들에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허락되지 않았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고려인들 가운데는 독립군을 돕는 아버지나 통역사 김연학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제에 부역하다 죽어가는 이들도 있다.¹³⁾ 금동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지켜본 것이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정서적 충격은 좀처럼 회복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화석화되어 결국 오랫동안 문금동의 인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가가 말한 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억은 괴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문금동의 현실을 감내하는 힘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인정루>에서 본 작품으로 이어지는 봉건질서, 제국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13) 작품에는 여러 통사들이 등장한다. 김연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동순, 앞의 논의, p.16.)이 아니라 아버지와 비밀리에 교류하면서 독립군을 돕는 인물로 등장한다. 고려인들을 회유, 억압하는 통사는 다른 인물로서 그는 이후, 총상을 입어 죽을 지경에 놓인다.

연민의 정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회구 등은 모두 어릴 적 체험에서 길러진 작가의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의 소설 작업은 과거의 기록이자 현재의 기록으로서 어릴 적 기억을 현실대응의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아버지와 홍범도, 남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본 작품의 주요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버지와 홍범도이며, 인간에 역시 이 두 인물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갈 데 없는 고려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다. 비록 방이 아닌 정주, 마당과 헛간 곳곳에 몸을 의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열악한 상황이나마 이렇게 기꺼이 공간을 내어준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이러한 아버지가 일본 군인에게 끌려가 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오자 청년들은 하나둘씩 독립단에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집 주인님 나는 실노귀분을 참지못하겠썅니다 주인님 여기 어대에 독립단이 있슴닛가? 나는 내일 곳 독립단을 찾어가 참 독립을 위하여 한번 총창을 빗겨들고 개암의 무리같은 일본 무리덜을 일비 지력으로 못지르려 하오니 좀 가르켜 주십시요

또 한사람이 말하기를

참 적은니 말삼이 적당하고 옳은말이요 나도 나은삼십을 가잡지만 청년인데 독립단으로 한번 가려하오 총과 칼만 있으면 그 외놈의 무리 천명이라도 겁나지않고 혼자라도 대적 할것갈소

주인님 아르시는 대로 알려주셔요

외몸사람 삼십여명이 일구동성으로 우리아부지의게 청을드니 <…>

그들은 아부지 앓는 사고를 안 이후에 에라 돈벌이고 무에고 겐우어 치우고 서로서로 말하기를 폐막 하는것을 보니 돈벌이는 고사하고 죽벌이도 없겠다 하고 독립단에 들어 한번 세상에 개국공신이 되겠다 하고 땀을 식 몸을 수습하여 떠나가니 그렇게 독립단으로 차서가는 사람이 날이갈수록 뿌러가더라¹⁴⁾

아버지는 가난한 고려인들의 삶을 보듬는 한편, 대의적인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는 청년들을 교화하는 인물이 아니다. 단지 부족한 형편이나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에 청년들이 감흥한 것이었다. 청년들의 결의에 아버지는 독립군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술밭관을 알려주고, 친구인 독립군 혈성당 사령관 허승환에게 편지를 내 이들을 부탁하기도 한다.¹⁵⁾ 아버지가 어떻게 독립군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허승환은 나의 친근한 친구요 대장 최씨는 내가임이 종성대에 중대장 지위에 있을때에 하사로 직무하던 자 외다”¹⁶⁾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그가 독립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는 일본군인 앞에서는 글을 모르는 무식자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의 상황을 독립군에 알리고 지령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14) 『아부지와 홍범도』, pp.18-19, p.23.

15) 허승환(1893~1938): 본명은 허승완으로 경남 통영 출신이다.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1922년 고려혁명군을 조직하여 특립대장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 블라디보스토크 송진관(일명 술밭관) 고려혁명당 결사대장으로 일본 관리 처단 목적으로 암살단을 조직하였으며, 1924년 왕청현 나자구에서 ‘대한신정부 혁명군’의 임시 제2중대장으로 활동하였다. 스탈린 정부 하에서 반혁명 인사로 몰려 총살당하였다. 국가보훈처: http://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13796&ipp=10000

한산신문: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62> 참조.

16) 『아부지와 홍범도』, p.21.

하는 등, 비밀리에 독립군을 돕는 인물이다. 또한 혹심한 고문에도 독립군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 의리를 지니고 있으며 무기를 모아 독립군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단순 민간인 신분으로 행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이러한 일 수행능력이 나 고문에 대처하는 정신력 등은 그가 어디선가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는 주위사람들을 위해 키우던 가축을 잡는 데 인색하지 않다. 독립군이 되어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것도, 병든 춘화가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것도 닭요리이다. 또한 홍범도 일행이 찾아왔을 때는 닭뿐만 아니라 돼지까지 잡아 융숭한 대접을 하는 등, 음식은 주요한 순간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소재가 되고 있다. 이들의 음식 나누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공감, 격려, 위로, 존중의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정루>에서도 닭요리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가산을 탕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연해주와 지리 환경적 특징을 서술하는 장면과 함께 당시 고려인들의 민간생활사와 관련하여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인간애의 추구는 홍범도의 인물형상화에서 보다 고양된다.¹⁷⁾ “홍범도는 1917년 11월 만주 밀산密山에서 다시 연해주 추풍의 다아재골로 왔다. <…> 범도는 추풍을 떠나기까지 약 1년 10개월을 그곳에 머물렀다.”¹⁸⁾ “러시아 연해주 추풍 당어재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홍범도가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것은 1919년 3·1운동이 발발한 이후이다.”¹⁹⁾는 그의 행적

17) 작품은 총 p.212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홍범도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p.176부터 등장한다.

18) 장세운, 앞의 책, p.128.

에 비추어볼 때 작품은 이 시기의 홍범도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19년은 금동이 8세 때로 작품에서 밝힌 나이와 일치하는 것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중아시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 홍범도의 품모와 인품에 대한 기억은 한결같다. 홍범도는 체격이 장수풍으로 장대하고 인품이 온화하며 소탈하며 동지애가 두텁고 총을 잘 쏘서 동료 의병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²⁰⁾ 본 작품에서 그려진 홍범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정 많은 인물로 아버지와는 결의(決意)한 형님동생 사이이다. 그는 금동의 형 금봉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며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아버지는 출입을 나갔다가 집으로 오는 걸음이었다 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버지는 그나그네 들을 살펴보더니 그 손님 굴에수염이난 분은 말씀 하시기를

이사람이 싹뭏쓰게 되엿구나 적으니 나를 모르겠는가?

하고 물으니 한참 눈덕여 보더니 우리아버지는 아이덜 처럼 그분에게 안기우며 형님

하고 하염없이 늙겨 우는지라 <...> 나의 금봉이는 어대가고 종적이 없네 잊엇쓰면 나의에게 안기워 나를 그래도 극진히 생각하련만

술마인김에 아버지와 범도는 흑흑늑기며 숯비우니 걸사람들도 마음이웅색하여 하더라 범도 말씀하시기를

이사람 우리그만두게 사람이란것은 생 하는법이있고 사하는 법이 있는지라 우리만 있는일이 아닐세²¹⁾

19) 반병률, 앞의 논문, p.629.

20) 위의 논문, p.643.

21) 『아버지와 홍범도』, pp.178-182.

홍범도는 전설적인 독립군대장이기 전에 이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대의를 위해 사적인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아버지가 독립군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현실을 부끄러워할 때도 아이 셋을 길러야 하는 아버지의 처지를 상기시키며 현실적인 선택에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아버지를 따르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홍범도를 따르는 것 역시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홍범도가 “현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이주한일들과 접촉을 게을리하지 않고, 무장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근거지 일대에서 다른 군소 단체들의 기부금 징수를 금지하며 동포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애썼다.”²²⁾라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버지와 홍범도의 인간적인 면모는 춘화의 장례를 치러주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춘화가 죽자 아버지는 풍장(風葬)에게 향두²³⁾ 청하지만만 거절당한다. 이에 홍범도는 “당신들은 우리와같은 조선사람이거던 엇지 애국지심이 없으리요 <…> 금일 당신들의게 우리조선 강토를 위하여 제조선사람을 위하여 동서사방으로 유리하다가 병이들어 죽은 나의 독립군 청년이 오늘그육망을 달치 못하고 죽었은즉 그 불상함을 늑기여 한번 향두를 운거하여 그를 죽은시체라도 위로코자”²⁴⁾ 하는데 어찌 그러느냐며 호통을 치고, 절차에 따라 장례를 잘 치르도록 명한다. 두 사람의 이러한 면모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으로 머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면면 속에서 독립의 정당성,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문금동은 두 사람의 인물형상화를 통해 독립을 위한 대의적인 활동들은 다른 것이

22) 김주용, 『홍범도의 항일무장투쟁과 역사적 의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2집, 2014, pp.476-477 참조.

23) ‘상여(喪輿)’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24) 『아부지와 홍범도』, p.206.

아니라 인간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홍범도라는 영웅적 인물이나 독립이라는 대의적 가치 아래 개인을 함몰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독립이 이데올로기나 혁명 구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인간에 실현에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홍범도의 등장 이후 고려인들의 현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독립을 향한 투지가 고양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각인되기 때문이다. 홍범도는 레닌 사상에 입각하여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18년 공산당 정부가 만든 ‘붉은 군대(赤軍, Krasnaya Armiya)’와 독립군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는 전 세계 무산자 계급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명이 가져다 준 러시아의 변화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황제 로시아가 정복되고 의회주권이 수립된것은 당신들도 똑똑히 아는것이 아님닛가 레닌동무는 로시아에 의회주권을 세우고 국가는 무산자의 국가 다시말하면 공장과 제조소는 노동자의게 토지는 농민의게 주며 착취의 방식을 영영없앨 국가가 된것을 동무들도 아는바가 아님닛가 레닌선생은 전 세계 무산자는 단합하라는 포어를 말씀하엿으며 찬동하엿습니다 과연 옳은 포어입니다 우리는 민족혁명을 할것이 아니라 한범위벗어져 세계 혁명을 하여야하겠습니까 <...> 로시아 붉은 군대와 우리독립군들은 힘을합하여 붉은 군대와 한힘으로 원동에 있는일본 군대와 백과 군대를 박멸하여 모라내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쓰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는 내달노 레닌 선생님이 있는데로 직접 차저 가려 합니다 <...>

우리와 그들이 또 힘을 합하여 싸와 우리도 자유롭게 살게 하오릿가?

홍범도는 말쌈 하시기를

문론입니다 레닌 선생은 식민지국에 대하여 많이 말삼하엿으며 레닌선생

은 러시아 혁명만 목적인것이 아니라 세계 혁명을 목적삼은 니 외다 우리는붉은그 아래 힘을 집중하여야 쓰겟습니다²⁵⁾

홍범도는 독립단 홀로 활동해서는 아까운 청년들 목숨만 앗아간다고 보고, 붉은 군대와 함께 일본군대와 제정러시아를 복구하려는 백파 군대를 박멸해야 한다며 한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의 러시아 변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는 민족혁명을 넘어 세계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레닌의 주장에 상당히 경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붉은 군대와 힘을 합해 싸우면 우리도 자유롭게 살게 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러하다”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한다. 그리고 “우리 한번 공동로동을 함이엇더 한가요?”²⁶⁾라며 사람들과 함께 금동 집의 타곡(打穀)일을 도움으로써 공동노동의 가치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아버지가 곡식 대부분을 지주들에게 바쳐야 한다며 한탄하자 “지금 러시아에는 이런 억울한 일을 없이 하고 땅은 빈민이 가지고 지주와 호호무리들을 박멸하였다네 우리 원동도 일본연합군과 백파를 모라내면 공장과 제조소는 노동자가 가질것이고 토지는(빈민) 농민이 가질것이 아닌가”²⁷⁾라며 사회주의 이상 실현에 고무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등장으로 고려인들은 공정한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얻고, 러시아 혁명세력과의 연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홍범도가 모스크바로 레닌을 만나러 가겠다고 홀연히 떠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되고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홍범도의 지도력과 고려인들의 지원이 항일무장투쟁의 원동력이었으며, 붉은 군대와의 협력을 도모할 만큼 러시아의 혁명과

25) 『아버지와 홍범도』, pp.183-184.

26) 『아버지와 홍범도』, p.191.

27) 『아버지와 홍범도』, pp.193-194.

사회이데올로기에 대해 이념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실 더 중요한 것은 홍범도가 레닌을 만났는지의 유무(有無),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삶의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마무리된다. 또한 레닌 이후, 1930년대 스탈린 권력 하에 수많은 고려인 지도자들이 숙청당한 사건 등은 언급되지 않으며 고려인들의 적(敵)은 일제, 그리고 이에 부역하는 고려인으로 한정돼 있다. 작가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작품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작가의 선택적 기억과 집필 당시의 작가의도가 작용하였음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러시아에 대한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고려인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인들은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 혁명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민족과 계급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고려인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작품에서도 러시아 사회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뿐만 아니라 작품이 창작된 1980년대까지 유지되는 인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전인적 사랑의 형상화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학의 주제는 소비에트와 붉은 군대의 찬양이었다. ‘고려’라는 표현 역시 조선에 한정된 표현이 아니라 세계주의를 표방한 국제적 용어임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땅에 사는 러시아인의 일원이자 공산혁명의 중심에 서 있음을 인식했기에 ‘고려’라는 용어는 스스로 이 땅 이곳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용어였다.”²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부침의 세월을 거처온 작가가 스탈린 치하

28) 우정권·임형모, 앞의 논문, pp.248-249 참조.

에서의 고려인들의 삶, 그리고 홍범도의 좌절과 실패까지 그리지 않은 것은 작품결말에서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능대로 남겨두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홍범도와 레닌으로 대표되는 고려인사회와 러시아사회의 만남, 민족을 넘어 사회주의 이상실현에 동참하는 세계인으로서 자리매김, 그로 인한 고려인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는 작품 창작 당시까지 진행형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적 전통성을 유지한 소비에트 공민이라는, 고려인의 특수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와 홍범도는 인간적인 면모를 두루 갖춘 인물일 뿐 아니라 독립이라는 대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닌 이상적인 인물들이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와 홍범도는 정서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한 일상의 회복, 그리고 독립이라는 대의적인 갈망이 투영된 존재로서 이들에 대한 형상화는 당시 고려인들의 현실극복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복원의 차원으로 머무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혈족으로서의 정통성을, 홍범도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인물이자 러시아 혁명의 동반자임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로서 이들에 대한 기억은 곧 러시아 사회 내 고려인들의 정치, 역사적 자리를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 작품은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의 현실 삶의 지향점을 재인식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부지와 홍범도>에서는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척박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정(情)’으로 대변되는 인간적인 가치 위에

독립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사실 본 작품에서 사건전개나 인물형상화 측면에서 미학적 요소들이 다소 결핍돼 있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비약적으로 이상화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직설적인 글쓰기 방법은 사실에 기반한, 기록문학이 가지는 특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작품의 미학적 성취 이전에 작가가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말을 잊지 않고, 체험을 바탕으로 고려인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 가치를 높이 살 만하다 하겠다. 나아가 무엇보다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작가의 삶과 어릴 적 일을 ‘잊을 수가 없어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작품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작품은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로서 그의 삶과 문학창작의 동인을 확인하는 데 주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작가는 고백처럼 자기 삶의 근원을 추적하고 현실의 자신을 반추한다. 문금동은 고려인 문단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누가 읽어줄지도 모를 글을 자필로 정성스레 써 내려갔던 것이다. 그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과거는 스탈린 치하에서 겪은 강제이주의 아픔이나 벌목장 노동자로서의 고단한 삶이 아니라 60여년이 지난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작가의 처지는 작품 속 금동과 다를 바가 없다. 즉 기억 속에 등장하는 어린 금동은 결국 그 시절에 멈추어 있는 어른 된 작가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작품은 작가의 자기 소명(疏明), 위로의 과정을 수행한 것이자 자기 삶에 대한 공감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록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꼽을 수 있다. 본 작품에서는 연해주의 지리, 환경적 특징과 함께 당시 고려인의 민간생활사를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세심한 관찰과 기억을 토대로 음식 나누기, 장례 등 삶과 죽음의 일상사와 이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가치들은 그려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난한 환경 속에서도 일상의 안정에만 갈급하지 않고 독립이라는 대의적 가치를 위해 어떻게 협력해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첩자로 오해받기도 했던 고려인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독립군 형성의 다양한 경로의 한 축이 민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와 함께 일반 고려인들에게 홍범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의병전쟁과 항일투쟁의 전사로서 기억되는 홍범도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독립의 목적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작품 곳곳에서 등장하는 ‘기록한다’는 말은 이러한 고려인들의 자기 증명을 대변하는 일로서 이는 자칫 왜곡, 망각돼 버릴 수 있는 러시아 이주 고려인 삶을 사실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의를 통해 <인정루>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점이다. <인정루>는 17, 8세기 조선을, 본 작품은 20세 초 러시아 연해주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차이가 있으나 문옥산에서 문승열, 문금동으로 이어지는 ‘문(文)’씨 집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조선백성들의 고단한 삶은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삶으로, 암행어사가 돼 백성을 구휼하던 문옥산의 대의적 면모는 아버지 문승열과 독립군 홍범도의 활약으로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 작품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문금동이 본 작품을 <인정루> 2부라 밝힌 이유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인간애는 결국 ‘인간’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정루>에 이어 본 작품에

서도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아버지와 홍범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첫 논의인 만큼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편지 내용, 아버지와 홍범도의 관계 등은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동원된 것임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작품 속 내용의 사실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문금동 삶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홍범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발굴, 수집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문금동 문학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인문학은 한국근대문학의 한 축을 형성하는 프로문학의 확장으로서 그 친연성”²⁹⁾이 있기 때문에 이들 문학과와의 연관성도 밝혀야 할 것이다. 문금동의 스승이 카프(KAPF)에서 활동한 포석 조명희라는 점, 그리고 그의 작품 역시 무산계급의 혁명을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고려인 문학을 단일민족이라는 함의로 수렴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처한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논의들은 문금동 작품 분석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정립, 기억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이주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9) 위의 논문, p.232.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문금동, 『아부지와 홍범도』, 현대문화사, 2017.

2. 논문 및 단행본

강진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역사 복원 욕망 연구 -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pp.302-329.

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 『현대문학의 연구』 제2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pp.171-201.

김종희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김주용, 「홍범도의 항일무장투쟁과 역사적 의의」, 『한국학연구』 제3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pp.476-477.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투> 연구」, 『한민족어문학』 7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pp.267-299.

반병률,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투쟁과 고려인 사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p.629, p.643.

반병률, 『홍범도 장군』, 한울, 2014.

오세호,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의 정체성과 홍범도 인식(1937~1964)」,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pp.260-297.

우정권 · 임형모, 「고려인문학의 성격과 전개 양상 : 1940~60년대 『레닌기치』 문예면에 나타난 고려인문학의 특징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4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p.232, pp.248-249.

이동순, 「고려인 기록문학 작품의 가치와 의미 - 문금동의 실록수기 <아부지와 홍범도>를 중심으로-」, 문금동, 『아부지와 홍범도』, 현대문화사, 2017, p.16, p.22.

이정선 · 임형모 · 우정권, 『고려인문학』 1~3, 청동거울, 2013.

임형모, 「강제적 ‘집단지주’의 인간학 :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강제이주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pp.95-126.

임형모 · 우정권 · 이정선, 『고려인문학』, 청동거울, 2013.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 월인, 2005, p.38.

장세운,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홍범도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pp.233-272.

장세운,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 역사공간, 2007, p.128.

타치야나 심비르체바·임경화,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 『한국학연구』 제35집,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4, pp.451-473.

3. 기타

국가보훈처: http://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13796&tipp=10000

한산신문: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62>

Abstract

A Study on the Autobiographical Novel of Moon, Geum-dong,
<Father and Hong, beom-do>

Kim, Hyun-ju

The <Father and Hong, beom-do> is a work that embodies the early migration to Russia Goryeoin including the father Moon, Seung-yeol and the Independent army Hong, beom-do as the setting of his childhood.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human aspect of his father and Hong, beom-do, by reminding him that the way to live in extreme circumstances is to be aware of himself as a human being, and in this way naturally intends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concept of independence. In other words, the two characters are the projections of the emotional stability of the Goryeoin and the desire of the overcoming the reality.

This work not only confirms the trajectory of Moon, Geum-dong 's life, but also has an important data value in study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of the coastal area, and gives insights into the life history of Goryeoin. In this respect, his writing was a work of sorting out the spiritual heritage of the Goryeoin society beyond his family history.

Key Word : Father, Hong, beom-do, Migration to Russia Goryeoin,
Independent army , Male characters, Human feelings

김현주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전자우편 : fussen677@cu.ac.kr

이 논문은 2017년 10월 29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